공감언론 뉴시스 NEWSIS 지방 > 전북

'수의사' 윤신근 원장, 모교 전북대에 11억 기부... 사연은?

등록 2024.04.08 14:46:26

[전주=뉴시스] 윤신근 원장이 지난 5일 열린 '전북대 77억원 발전 기금 모금 선포식'에서 기부금 10억원 달성 기념사진을 찍고 있는 모습. (사진=전북대 제공) 2024.04.08. photo@newsis.com

[전주=뉴시스] 윤난슬 기자 = 과거 생소했던 반려동물 문화를 국내에 알리는데 기여한 수의사 윤신근 원장(전북대학교 수의대 72학번)이 모교에 11억원을 내놨다.

8일 전북대에 따르면 윤 원장은 지난 5일 열린 '전북대 77억원 발전 기금 모금 선포식'에서 4000만원을 기부하며 현재까지 총 10억원의 기부를 완성했다.

특히 윤 원장은 이날 선포식 현장에서 예정에 없었던 1억원을 추가로 기부했다.

2000년부터 모교와 후배들을 위한 기부를 시작한 윤 원장은 해마다 소정의 기금을 대학에 보내왔다. 하지만 이마저도 늘 부족하다고 생각한 윤 원장은 2011년 5억원을 약정해 2021년 완납했다. 또 그 해 완납과 함께 또 다시 5억원을 약정해 매년 기부가 이어지고 있다.

당시 수의대 학생들의 실습 등에 도움이 되고 싶다며 1억원 상당의 동물 조직검사와 줄기세포 자가 수혈 장비를 기부하기도 했다.

윤 원장이 후배들을 위해 기부하고 약정한 금액만도 17억원에 달한다.

그는 모교에 대한 기부가 진심인 이유는 가난한 학창시절 대학에 진 마음의 빚이었다.

윤 원장은 "대학 재학 시절 어려운 가정형편 탓에 외판원 생활 등을 했고 당시 모교에서 준 소중한 장학금으로 학업을 마칠 수 있었다"며 "나와 비슷한 환경에 처한 모교 후배들에게 베풀고자 발전 기금을 내놓기로 결심했다"고 말했다.

이어 "이 기금이 밑거름돼 모교가 글로컬대학으로 변화와 혁신을 지속하고 후배들 역시 나의 대학 시절과 같은 어려움이 없이 학업에 정진할 수 있다면 그보다 더한 기쁨이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윤 원장은 전북대 수의대를 졸업한 뒤 1985년부터 서울에서 '윤신근 박사 동물병원'을 운영하면서 매년 애완동물 촬영대회 등을 열어 국내에 생소하던 반려동물 문화를 알렸다.

그는 매년 사재를 털어 반려동물 사진 촬영대회를 열고 '세계 애견대백과', '애견기르기', '진돗개', '풍산개', '오수개', '개를 무서워하는 수의사' 등 저서를 펴내기도 했다.

그는 1000년 전 우리 고장에서 사라진 '오수개' 복원 사업을 펼치기도 했다. 특히 1991년 '한국동물보호연구회'를 설립해 보신탕 추방 등 동물권 확립에 앞장서 왔다.

◎공감언론 뉴시스 yns4656@newsis.com
Copyright © NEWSIS.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